

SK이노, '아.그.위.그' 시즌3 산해진미 플로깅

전 구성원 ESG활동 참여... 연말까지 폐플라스틱 수거



4인 이하 진행, 6~7월 집중 활동
수거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김준 사장 "ESG경영 폭 넓혀갈 것"

SK이노베이션이 폐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ESG 활동으로 6월부터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원 봉사활동인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이번 캠페인인 당사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친환경 캠페인 '아.그.위.그(I Green We Green)'가 시즌3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아.그.위.그는 시즌 1 일회용품 줄이기로 시작해 시즌2에서는 '음식물 잔반 제로', '폐 페트병 뜯버(병뚜껑, 라벨 뜯어 버리기) 캠페인'으로 계속 진화하고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왼쪽 첫 번째)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 아그위그 시즌3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했다.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실천적 친환경 캠페인이다.

올해 아.그.위.그 시즌3로 시작한 산해진미 플로깅은 폐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산과 바다를 지켜 참 아름다운 지구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플로카우프(Plocka upp)와 영어로 달리기라는 뜻인 조깅의 합성어다.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동안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신조어다. 산해진미 플로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개념을 넘어 사회적가치(SV) 창출로 이어진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서울, 울산, 인천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후 이를 활용해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 독거노인, 발달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에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4인 이하로 진행하고, 6월~7월을 집중 활동 기간으로 삼고 연말까지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산해진미 플로깅을 하고, 모은 폐플라스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다가오는 휴가 시즌에는 구성원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벤트도 준비한다. 특히 지난 아.그.위.그 시즌2에서 홍보대사로 나섰던 SK이노베

이션 계열 경영진들이 이번 시즌에서도 솔선수범하며 전사 구성원들의 참여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우선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지난 4일 산해진미 플로깅의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김준 총괄사장은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같은 날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나경수 사장은 올해 들어 11번째 플로깅을 진행하는 등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준 총괄사장은 "아그위그 산해진미 프로그램이 자원봉사를 넘어 심각한 환경문제인 폐플라스틱 이슈 해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가면서 ESG경영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非메모리 업계, 담당사업 경계 넘는다... 역대급 총력전 예고

컴퓨텍스 2021

30일까지 온라인 행사 개최
인텔 신형 프로세서 출시 공식화
AMD 'AMD 3D 칩셋' 신기술 공개
ARM 인텔·AMD x86 시장 공략

비메모리 업계가 물고 물리는 경쟁에 돌입했다. 각자 담당하고 있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진짜 실력을 앞세워 총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컴퓨텍스2021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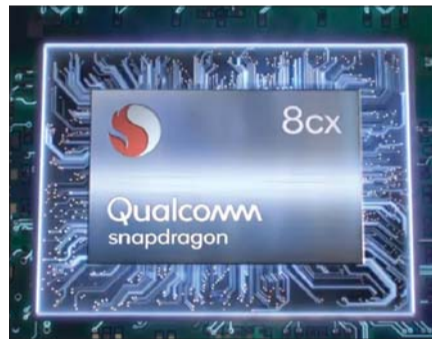
컴퓨텍스는 대만에서 열리는 IT박람회로, 특히 전세계 시스템 반도체 업계가 모여 최신 트렌드를 뽐내는 자리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에도 팹리스와 IDM 등 반도체 설계 분야 주요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기조연설에도 참여해 시장 계획을 밝혔다.

업계 1위 인텔은 다시 한번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수준 높은 기술력을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노트북용 프로세서 2종과 함께 내년 PC와 서버용 프로세서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다.

AMD는 다시 한 번 새로운 기술로



인텔 아이리스 Xe 맥스 외장그래픽 장치 /인텔



스냅드래곤 8cx. /퀄컴



갤럭시북 고. /삼성전자



리사 수 박사가 컴퓨텍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AMD

인텔을 압박했다. TSMC와 공동 개발한 반도체를 쏟아 올려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키징 기술 'AMD 3D 칩셋'이 주인공. 미세 공정에 이어 패키징 기술까지 더해 인텔 성능을 따라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Arm 진영은 인텔과 AMD의 x86를

겨냥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북 고가 주인공이다. 2019년 선보인 갤럭시북 S에 이어 Arm 기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가격도 30만원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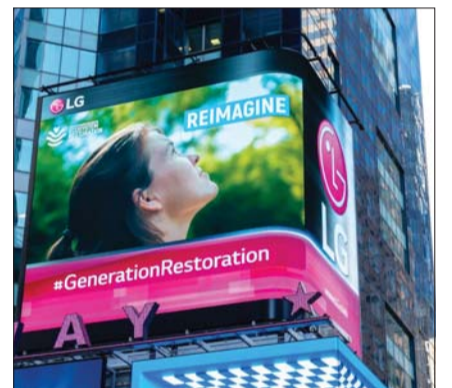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7c 2세대를

사용한다. 추후 출시할 5G 모델은 8cx 2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과 협력을 포기한 상황, 갤럭시북 고를 필두로 Arm 기반 PC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Arm 진영 내부 경쟁도 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차기작 AP부터 AMD GPU를 사용기로 한 것. 종전까지 Arm 진영은 대부분 AP에 Arm이 만든 말리 GPU를 사용해왔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업계 1위인 퀄컴 스냅드래곤과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Arm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는 Arm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Arm이 최근 GPU 성능 제고에 힘을 쏟았던 만큼, 인수 후 GPU 1위인 엔비디아 기술력이 Arm에 적용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컴퓨텍스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인텔은 엔비디아와 AMD가 주도하는 GPU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해 외장형 GPU인 아이리스 Xe를 내놓은데 이어, 올해말 고성능 GPU도 새로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상영 중인 기념 영상. /LG전자

LG전자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 공개

타임스스퀘어, 피카딜리 광장 내 상영

LG전자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LG전자는 5일부터 6월 한달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타임스스퀘어와 피카딜리광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했으며, 2011년부터 이어왔다.

영상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만든 것이다. 올해 주제인 생태계 복원에 맞춰 'Reimagine', 'Recreate', 'Restore' 등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았다.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이어간다. 캠페인 슬로건 공모, 개인컵 사용 인증샷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전무는 "고객과 임직원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르노삼성, 2022년형 'XM3' 출시 기념 이벤트

선착순 100명 캠핑 왜건 증정

르노삼성자동차는 쿠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XM3에 'NEXT GENERATION SUV'라는 새로운 태그 라인을 명명한 2022년형을 출시하고 6월 3주 동안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장 방문 시 승승하거나 구매상담을 하면 참여가 완료되고 계약을 한 고객에게 별도의 선물이 증정된다.

이번 경품 이벤트는 6월 28일까지 2022년형 XM3를 계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새로운 태그 라인인 NEXT GENERATION SUV

와 XM3를 새겨 넣은 캠핑 왜건을 선물로 증정한다.

'NEXT GENERATION SUV'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스타일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SUV를 의미하며, 르노삼성은 XM3의 주요고객인 MZ세대가 캠핑과 차박을 주로 즐긴다는 점에 착안해 인기 캠핑 아이템 왜건을 선물



2022년형 XM3.

로 마련했다. 오는 7월 26일부터 발송되며 점점 또는 베이지 색상으로 발송된다. /양성운 기자 ysw@

/김재용 기자